

월요광장

항아리를 깬 범인을 찾아서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작품을 발표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깨어진 항아리'는 네덜란드 농촌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집안에서 야기된 항아리가 밤사이에 깨지면서 벌어진 이야기다. 밤에 누군가 이 집 딸인 에페의 방에 침입했다가 항아리를 깨고 도망친 것이다. 그리고 에페의 어머니는 범인이 분명 딸의 약혼자라고 믿고 있다.

마을의 유일한 판사이자 촌장인 아담이 범인의 판결을 위한 재판을 주관해야 한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인 판사 아담은 탐욕스럽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호색가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타난 판사의 모습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당시의 판사라면 반드시 써야 하는 권위의 상징인 가발도 쓰지 않았고 머리에 상투가 있으며, 몹시 불한찬 모습으로 허둥거린다. 마침 에페의 어머니가 딸의 약혼자가 분명 범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판사는 반색하며 일사천리로 판결을 서두른다.

하지만 사실은 마을 처녀 에페에게 접근하다가 들켜게 되자 도망친 사람은 판사 아담이다. 창문을 통해서 급히 빠져나가다가 에페의 어머니가 아끼는 항아리를 깨뜨린 것이다. 그러니 판사에게는 다

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것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다. 자기 대신에 합당한 평범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쓴다고 해서 무엇이 대수겠는가. 거기에 에페의 약혼자가 범인이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작가는 판사가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놀랍도록 '정교하고 치밀하고' 구성함으로써 진실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다. 범행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판사의 범죄 사실이 차츰차츰 드러나는 방식이다. 마침내 결정적 증거인 판사의 잃어버린 가발이 에페네 집 근처에서 발견된다.

에페의 어머니는 진범에 대한 확증을 가진 채로 '어떻게, 왜 판사가 에페의 방에서' 도망칠 수 있느냐며 기겁을 한다. 여기에서 범인에 대한 확증이 판사는 법을 행하며 지키는 존재이지, 법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맹목적 믿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 것일 뿐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본다. 마침내 판사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활함, 권력에도 취로 스스로 빛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다. 판결하는 법관과 범죄를 저지른 피고 한 사람이나 이보다 더한 자야분열과 혼란이 없다. 자신을 범인으로 판결할 수 없으니 범인을 만들어 내야 하고, 판사지

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으니 거짓과 조작이 필요하다.

에페는 판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약혼자가 전정터로 소집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있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대 소집 또한 판사의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판사 아담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이 범인의 모습으로 황급하게 도주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냥 웃기만 할 수 없는 복잡한 내적 감정과 대면하게 된다. 부패 속 판사에 대한 분노는 현실 속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당연히 작품의 판사는 법체계와 구체적 법 집행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에서 판사 아담으로 치장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행여 '아담 같은 판사'로서, 자신만을 위한 '정의'를 진정한 정의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닌지 새삼 깊이 염려스럽다.

기고

코로나가 학교 교육에 준 다섯 가지 교훈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하는 곳이 아니라 돌봄과 사회성 개발, 그리고 비인지적 교과를 교육하는 참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둘째, 코로나는 주로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빈곤 계층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학생들 중에서도 기초수급 대상자나 결손 가정 혹은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코로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건강과 보건 위생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전체 학교의 방역과 소독은 물론 특별히 취약 계층의 건강·보건·위생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토록 요구한다. 거기에 저소득 빈곤계층 아이들은 평소에도 가정에서 집중 양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 결과를 낳곤 했다.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대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이 계층간 학력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는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셋째, 코로나는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과 동시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즉 등교를 하지 못함으로서 오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과 대면 수업간 혼합 수업 방식(blended learning),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방법(untaact learning·화상 강의 등), 그리고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등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의 활용, 지식 교육 이외의 예체능 실기 교과의 운영 방안, 전문계고의 실습 방안, 사회성이나 공동체성과 같은 대면적 접촉을 통해 더불어 함께해야 배양 가능한 역량, 비인지적 영역인 상담이나 생활 지도 그리고 인성 교육 방법 등 해결해야 할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안겨 주었다.

넷째, 코로나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육이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라도 소규모로 참여해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 것이다. 즉 가정, 학교, 지자체, 대학, 민간,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평생 교육의 개념이 작동하지 않고는 미래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

다. 코로나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대학이 마을 교육 공동체 및 지역의 평생 교육 기관과 연계해 마을 아이들의 돌봄과 복지 그리고 교육을 함께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는 오래도록 잊혀졌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하였다. 코로나는 주로 밀집된 대형 집단을 공격한다. 그런데 그동안 천덕꾸러기였던 소규모 학교는 코로나에도 끄떡없다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해 등교 수업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도시의 대규모 학교는 2부제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집단을 소규모로 축소시키려고 새삼 애를 쓰고 있다. 거기에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결부되면 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작은 것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훈이 교훈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교훈이 아니다. 사람이 고귀한 것은 자기반성과 성찰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의 종식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다 준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기고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의 가치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지난날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초래된 획일적인 경관과 자동차 위주의 거리, 자연환경 훼손, 이웃과의 단절,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짓던 방식을 탈피하고,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도시·건축 기본 원칙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을 오는 30일 선포할 계획이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은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률보다도 강한 사회적 호소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광주시 도시·건축 계획 수립의 기초로서 도시·건축 행정 전반에 반영하게 된다.

우리 시는 작년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주 도시·건축 선언'에 대한 필요성과 선언 내용을 논의하며 밑그림을 그려왔고,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총괄 건축가 및 24인의 공공 건축가, 전문가 협의체, 33인의 선언문 제정위원회 등 각

계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을 선포하고자 한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의 전문에는 시민들께서 삶의 여유와 활력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와 생산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광주 도시·건축 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10개의 조문에는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존중, 자연 경관 보존, 보행 친화적 생태 교통 추구,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공원,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도시,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 참여와 소통의 공공 건축, 열린 도시 구조,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 공간, 공공성과 절차의 정의로움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선언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도시·건축 선언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경관심의위원회·공원녹지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시 도시·건축 선언의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 건축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

로 의향이자 예향, 미향인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광주다움'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 순위가 높은 도시들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차량에서 보행으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성장에서 지속으로, 양에서 질로, 도시·건축의 통념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광주가 이러한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한다.

이 선언문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하나의 마음과 공간이 모든 이의 마음과 공간이 조화되어 우뚝 서는 무등(無等)의 광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역사의 시작이며, 모두에 대한 약속이다. 새롭게 열리는 광주의 도시·건축은 삶의 여유와 활력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와 생산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앞으로 도시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도시 건축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社說

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등 적극 검토해야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시와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자 간 제2 순환도로 운영 협약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익 처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이다.

앞서 제 열린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제2 순환도로 1구간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2016년 말 협약 변경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현재 낭비는 물론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맥쿼리는 지난 2001년 협약에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해 시의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시는 소송전에 나섰지만 민선 6기에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맥

쿼리의 수익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자 수익률 과다 책정, 투자금 부풀리기 등을 집중 거론하며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질타했다. 제2 순환도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광주일보가 2018년부터 지속적인 보도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100억 원 이상의 환급 법인세를 광주시가 돌려받지 않거나 이중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재정지원금을 13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합리한 협약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시가 업체의 법인세를 보전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하이패스 개통 이후 통행량이 늘고 있는 만큼 재협상을 통해 지원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낭비를 막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도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시급하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역시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거나 차선이 부족하거나,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박완수 의원(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 광천 사거리(신세계백화점), 상무지구 입구(운천저수지 앞), 무진교(전남지방우정청 앞) 부근이었다. 이들 세 지역에서는 각각 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동쪽(57건), 남구 주월교차로·동아병원 앞(56건), 상촌역 사거리(48건), 광산구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47건), 북구 운암 사거리(46건), 서구 화정역 사거리(43건) 순이었다.

한데 이들 지역은 모두 교통량이 많다

는 공통점이 있었다. 교통량 과다는 결국 차량 정체로 이어지고 운전자들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신호 위반, 꼬리 물기 등으로 이어져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도 많아진 것이다.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 광천사거리의 경우 광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신세계백화점 입구로 가려는 차량들이 얽혀 사고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인도 쪽으로 한 개 차선을 증설해야 원활한 교통 흐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구 무진교 동단(전남지방우정청 앞) 구간도 차선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차선 증설 등 개선을 서둘러야겠다. 특히 행정 당국과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한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1802-1885)가 1862년에 발표한 세기의 명작이다. 한 인간의 가혹한 운명을 모티브로 역사·철학·종교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으며 그동안 영화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창작됐다. 죄와 용서, 사랑과 우정, 사회적 부조리와 인간애 등 소설에 담긴 사유와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

가난한 노동자였던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 갇혀 지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게 되어 살아간다. 어느 날 한 소년이 흘린 은전이 발 앞으로 굴러오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뺏는다. 중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던 장발장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세계의 명작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통용되는 이야기와 주제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코로나 장발장' 사연이 보도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남자는 예전 고시원에서 사 먹었던 구운 달걀이 생각났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절도를 했다.

달걀을 훔친 남자는 어린 시절 가정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한 사연이 있다. 이전의 절도 기록을 보면 고콜상 손소설에 담긴 사유와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

‘코로나 장발장’

이라는 글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레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해고, 코로나 장발장 등...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참히 끊어지면서 '비참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언택트, 비접촉이라는 시대 조류 탓에 도움의 손길마저 차단된 상태.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떠한 법도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코로나 장발장은 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의 모습이다.

/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